

물가, 다시 뚝다



치솟는 기름값 광주·전남 휘발유 값이 전년보다 22% 급등하는 등 지난달 지역 물가 상승률이 9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기름을 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소비자물가 9년 여 만에 최고 폭으로 상승
'5월 물가' 광주 2.7%·전남 3.1% 상승 ... 파·마늘 등 농산물 ↑

휘발유 가격 22% 급등

코로나 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심상치 않다. 긴장과 태풍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수축산물 중심으로 장 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데 이어 올 들어서는 공업제품마저 가격이 오르면서 '코로나 19 생활고'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지역 소비자물가는 9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휘발유 가격은 22% 급등하며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광주 2.7%·전남 3.1% 상승했다. 지역 물가는 지난해 10월 '마이너스' 상승을 끝으로 7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광주 소비자물가는 지난 2017년 1월(2.7%) 이

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전남은 지난 2012년 1월(3.4%) 이후 무려 9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3%대 물가상승률을 나타낸 지역은 제주(3.6%)와 전북(3.2%), 충남(3.1%), 전남 등 4곳이다. 전국 평균 물가 상승률은 2.6%로, 이 같은 상승률은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다. 전남 물가 상승률은 6개월 연속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국적으로 3.3% 오른 가운데, 광주 3.5%·전남 4.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신석식품지수(전국 13.0% ↑)는 광주 11.3%·전남 7.6% 올랐다. 이번 조사대상 품목 460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 이상을 나타낸 품목은 광주 47개·전남 39개에 달했다.

농축수산물 73개 품목 가운데 지난해보다 값이 오른 품목은 광주·전남 각각 49개였다. '금과 파'를 부른 파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광주 130.3%·전남 112.4% 각각 치솟았다. 사과(광주 48.7%·전남 62.7%), 마늘(70.7%·전남 55.5%), 고춧가루(광주 25.0%·전남 47.4%), 오이(54.5%·전남 40.7%), 배(광주 36.8%·전남 36.6%)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가 지속되면서 달걀 가격이 전년보다 광주 42.8%·전남 30.8% 상승했다. 돼지고기 값은 광주 9.8%·전남 12.4% 올랐다. 자동차용LPG·휘발유·경유 등을 아우르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광주 22.5%·전남 21.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광주는 2008년 8월(27.1%), 전남은 2008년 9월(24.6%) 이후 최고다. 이 가운데 휘발유 가격은 전년 같은 달보다 광주 21.8%·전남 22.0% 올랐다. 휘발유 값 상승률이 20%를 넘긴 건 지난 2010년 1월(광주 26.6%·전남 25.9%)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당국은 9년여 만의 상승률 2%를 웃도는 고물가에 대해 코로나 19 경기침체에 대한 기저효과라며 인플레이션(고물가) 우려를 일축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가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부터는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농축수산물이나 국제유가도 오름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 6면 광주지방법원 파산 법정 가보니 ...
- ▶ 18면 KIA 황대인 "삼진 100개 품 먹어야죠"
- ▶ 22면 신 팔도명물 - 용천수가 키운 평창 송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균형발전 컨설팅'으로 바뀌야

효율·경제성 중심 제도 운용
국가 불균형 발전 초래
쇠퇴한 지역 되살리기에 치중을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컨설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20년 이상 '효율'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제도 운용으로 국가 불균형 발전을 초래한 만큼 향후에는 '균형'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쇠퇴한 지역을 되살리는데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경제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유치, 민간과 공공이 함께 투자하는 제3섹터 방식 등을 통해 사업 예산을 조달하고, 경제성은 낮지만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예타 조사에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지자체의 지역내후도 지수를 산정하기로 하는 등 표준지침을 대폭 개설했다.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인구 감소, 경제 규모 축소 등으로 인구소멸 위험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턱이 완전히 낮아진 것은 아니다. 지역내후도지수의 지표와 과거 8개에서 36개로 늘려 지역여건을 보다 심도 높게 살펴보겠다는 취지이지만, 지역내후도 비중을 기존보다 높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비용편익 분석이 인구, 경제 규모 등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이 가장 유리하고, 이어 영남권, 충청권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다. 광주정보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예타 제도 개편 이력 21년간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집중됐는지를 분석했다.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미래산업 및 연구개발시설, 지역속원사업 등에 필요한 국가 예산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21년간 전국적으로 모두 618건(지역 중북 포함) 280조3231억원(억원 미만 삭제)의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됐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정부부처 직접 사업 등에 해당하는 '기타' (83건 33조1633억원)를 제외하고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에서는 21년간 104건 36조2543억원이 통과됐다. 예산으로 따져보면 전체의 14.67%다. 이에 비해 수도권 142건 86조5914억원으로 35.04%, 영남권 175건 65조4966억원으로 26.50%를 차지했다. 대규모 사업 예산의 61.54%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것이다. 충청권은 74건 34조6916억원(14.04%), 강원·제주권은 33건 24조1259억원(9.76%)이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2009~2017년)에서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급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광주 6건(2조5008억원), 전남 9건(9644억원) 등 15건 3조4652억원(5.68%)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에 더해 광주 4건(6579억원), 전남 4건(3178억원) 등 11건 9757억원(2.51%)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 재정 투자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영남권의 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한 반면 광주·전남은 보수정권으로 바뀔 때마다 차별을 받으면서 제 때 기반·편의·미래시설을 갖추지 못하면서 더 쇠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 예타가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국가 재정의 집중적인 투입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향후 예타는 쇠퇴한 지역이 대규모 사업을 제대로 계획·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컨설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이 높은 비용편익분석(B/C) 1.3 이상은 민간자본 유치를 권장하고, 0.8에서 1.3까지는 국가 재정 지원, 0.5에서 0.8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검토 및 컨설팅하는 등의 방향으로의 개선이 거론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로나 백신 접종률 광주 13.4%, 전남 20.1% 전국 최고

전국 평균 12.2%에 그쳐

광주·전남지역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는 이날 현재 총 20만826명이 1차 접종을 해 전체 인구대비 13.4%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접종률이다. 이 중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시민은 6만 9430명이다. 전국 평균 접종률은 12.2%다. 광주지역 상반기 접종 대상자 중 1차 대응요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취약시설, 코로나 19 치료병원, 노인시설 등은 모두 90% 넘는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광주는 상대적으로 접종률

꺼려하는 75세 이상 고연령층 어르신의 접종률도 70.3%에 이른다. 전남지역 백신 접종률은 20%를 넘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전남지역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 20.1%를 기록했다. 전체 20만 185만1549명 가운데 37만1853명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은 14만 6490명(7.9%)에 이른다. 전남도는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자에 대한 기존 혜택에 더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라도 현재는 경로당 등에서는 취식까지만 가능하지만 이를 조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The New S-Class

Trust in the Best.

완전히 새로워진 S-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동대로 1041(화정동)
S8 인공물고기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명동대로 516(수환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여암대로 603(반남 20소문동)
주안 서비스센터 (062)94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당동대로 520(수환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400 4M (배기량:2925,공차중량2510,차용년), 복합연비:11.4(도시상주, 고속도로:14.0)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70
- S580 4M (배기량:3982,공차중량2720,차용년), 복합연비:7.4(도시상주, 고속도로:9.9) 5등급, 복합CO2 배출량: 277
* 본 차량에 표기된 연비(에너지소비효율)는 실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여의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